뜬금없이 어느 민중가수의 옛 노래
한가락이 떠오릅니다.

“삶이란 나 아닌 다른 이에게
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.
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
되려하지 못했나보다~.“

어둠이 밀려드는 밤이었고
머문 곳은 서울 하늘 아래
소박한 달동네의
작은 골목 귀퉁이였습니다.
낡고 허름한 집 안마당에 쏟아지는 외줄기
가로등 불빛에 취해 나도 모르게 몇 마디
노랫가락을 흥얼거린 것이지요.

가만히 서서
짙은 어둠 속 듬성듬성 불을 밝히며
제 할 노릇에 충실한 가로등
그 아래를 살펴봅니다.

걷지 않은 빨래들에 호기심이 엉기고
불 꺼진 창문을 보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
집주인의 낯모를 얼굴도 성겨듭니다.

그러다 문득, 지난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.
과연 가로등 불빛만한 노릇이나
제대로 해본 적은 있는지,
한 겨울 시린 추위에 뉘 등이나
한번 따숩게 데운 적이 있는지.
내 앞가림만 하려다
허둥대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.

온몸으로 다른 삶과 마주하는 날.
이제라도 그리 할 노릇 한번 품어도 될까요.